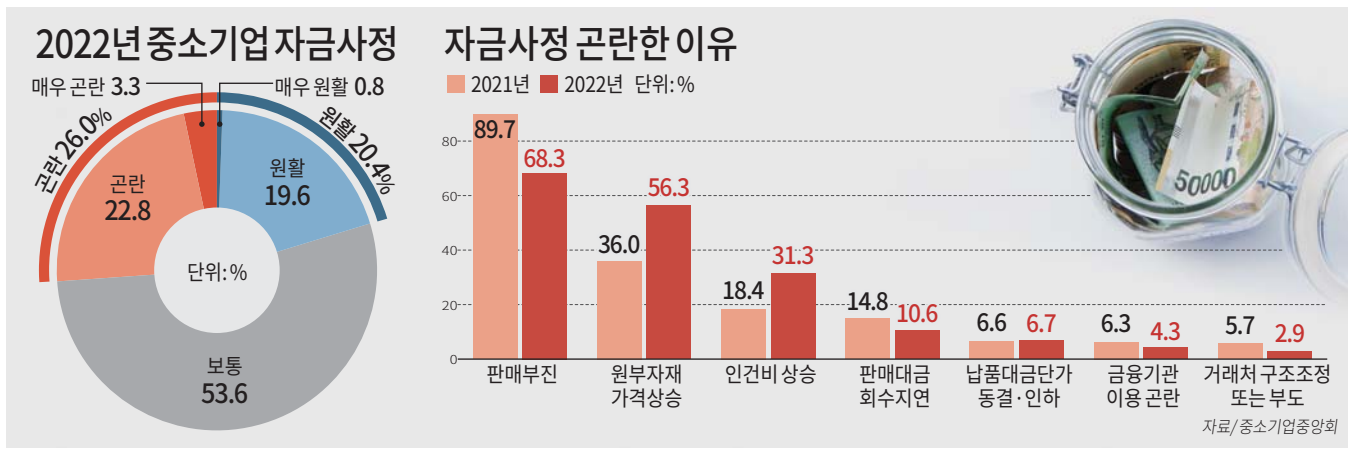
中企 26% "올 설 자금사정 '빨간불'… 평균 2.7억 필요"

판매부진 이유로 곤란 68.3%
은행 이용시 '높은 금리' 애로
납품대금 조기회수로 자금 확보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곤란'에 대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설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평균 2억7150만원으로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은 '납품대금 조기회수'를 통해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6일부터 12일 사이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내놓은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26%로 집계됐다. 이는 '원활하다'(20.4%)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선 '곤란하다'가 38.5%, '원활하다'가 15.8%였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판매부진'이 68.3%로 가장 많은 가운데 ▲원·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지연(1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자금사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5.6%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의 '그렇다'(96.1%)는 응답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에 대해선 '원활함'(23.8%)이 '곤란함'(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을 묻는 질문에선 '원활함'과 '곤란함'이 각각 20%, 24.1%여서 올해가 상대적으로 양호해진 모습이다.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할 때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33.5%)가 1순위였다. 또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20.5%),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15.3%)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올해 설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7150만원으로 지난해 설의 수요자금(2억1490만원)보다 5660만원이 더 늘었다.

부족한 자금에 대해선 '납품대금 조기 회수'(50.3%), '금융기관 차입'(30.2%), '결제연기'(21.1%)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금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7.6%에 불과했다. 20%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평균 액수는 44만7000원으로 지난해 설(48만2000원)보다 3만5000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설 휴무계획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95%가 설 연휴 전체인 '5일을 쉬겠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수출 증가 등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호전된 반면, 소기업들은 오미크론 발발로 인해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규모일수록, 내수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금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참여 대기업·공공기관 모집

ICT 스마트공장 구축 돕는다

정부, 구축비 일부 지원사업
기업 부담 줄여 생산성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일환으로 주관기관인 대기업·공공기관과 도입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 ▲유형2(소기업전용)로 각각 구분했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 비율은 최소 70%다. 정부지원금(최고 기준)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200만원, 고도화1은 1억2000만원, 고도화2는 2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내는 구조여서 중소·중견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구축을 돕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50%(각각 최대 1000만원)씩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재원관리, 행정지원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출연에 대해선 기부금 인정,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00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따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는 절감돼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메타버스서 서비스 펼친다

컴투스-위지윅스튜디오와 MOU

교원그룹이 메타버스 사업 강화에 나선다. 18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최근 컴투스, 위지윅스튜디오와 메타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사는 이번 MOU을 통해 컴투스와 위지윅스튜디오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Com2Verse)'에 교원그룹의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고, 이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컴투버스'는 게임을 넘어 일, 생활, 놀이가 모두 이뤄지는 올인원 미러월드 형태의 '올인원(all-in-one)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가상 오피스 환경인 '오피스 월드'와 쇼핑 및 금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머셜 월드', 게임, 음악, 영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월드',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인 '커뮤니티 월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왼쪽부터)송재준 컴투스 대표, 장동하 교원그룹 기획조정실장, 위지윅스튜디오 박관우 대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그룹

교원그룹은 생활 밀착형 공간인 '커머셜 월드' 내 주요 사업 영역의 콘텐츠를 구현하고 가상 세계에서도 이용자들이 교원그룹의 다양한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한샘, 자녀 성향 따라 방 공간 제안

'아이방상담소' 기획전

한샘이 자녀방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자녀의 성향, 특성 등의 유형에 따라 한샘 자녀방 공간을 제안하는 '아이방상담소' 기획전을 펼친다.

18일 한샘에 따르면 온라인 홈페이지 '한샘닷컴'에서 진행하는 아이방상담소 기획전은 자녀들의 각 유형에 따라 한샘 자녀방 가구로 꾸민 다섯 가지 공간을 제안한다.

기획전에선 자녀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설문을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말괄량이 삐삐형, 스스로 탐험가형, 부지런한 마법사형 등 한샘이 선정한 다섯 가지 형태의 자녀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동반위-IBK기업은행

ESG 우수기업에 금리 우대

동반성장위원회가 IBK기업은행과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18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ESG 우수 중소기업에게 금리 우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행사 없이 서면으로 실시했다.

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고 ESG교육 및 현장 컨설팅 후 ESG 평가결과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김승호 기자

신세계까사

새해 맞이 정기세일 실시

신세계까사가 새해를 맞아 오는 2월 13일까지 정기세일을 실시한다.

18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이번 정기세일은 새해 집 단장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홈 인테리어의 중심인 거실부터 주방, 침실, 자녀방까지 인기 가구 및 소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다양한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와 협업한 '디자이너스 컬렉션'과 프렌치 모던 양식의 프리미엄 가구 컬렉션 '라메종'을 각각 15% 싼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버스티비 J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방역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 서울고검,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정당 처분

▲ 광주 붕괴사고 희생자 발인…"HDC 정몽규 회장 처벌해야" /사진 뉴시스
▲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국가 상대 소송

▲ BTS 웹툰·웹소설, 이틀 만에 조회 수 1500만 건…최고치 경신 /사진 뉴시스
▲ 중소기업 37.6% "설 상여금 지급" 평균 44만7천원